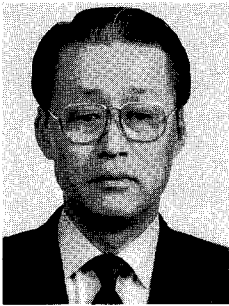


세계화 시대의 가전제조업의 경영전략



조 동 인 전무
삼 성 전 지 (주)

환경의 변화

우루과이 라운드, WTO등 새로운 말들이 보편화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하의 온실속에서 제한된 국내시장만을 상대하던 기업들이 전세계로 눈을 돌릴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정부의 보호막도 힘을 못쓰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 기업의 규모가 이제 제한된 국내시장만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커진 것이다. 거기에 교통통신의 급격한 발전은 전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어 버렸고, 내나라 내고장만을 찾는 지역 이기주의적 사고로는 발전은 커녕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생존하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으니까"라는 자신감만으로(특히 성공적이었던 회사일수록) 지금까지의 경영철학을 고수하는 기업은 망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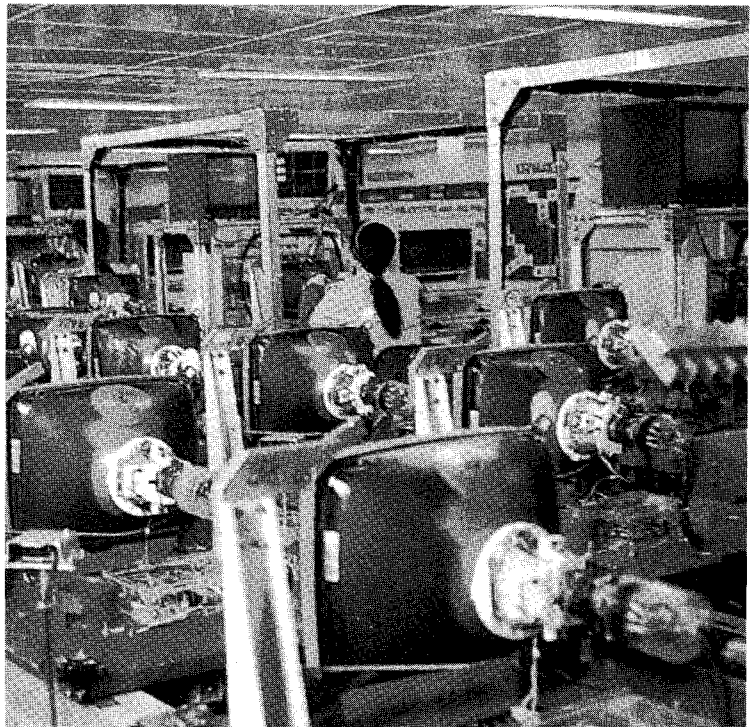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은 발전하게 될 것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가장 바뀌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점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 가치관의 상실, 곳곳에 만연된 부실등은 모두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게 급속히 성장한 GNP의 성장속도를 국민의 의식변화가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현실이라고 본다. 언젠가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머리를 빨리 바꿀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3대가 지나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읽은 일이 있는데, 결국 사람의 사고가 제대로 바뀔려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 죽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말일 것이다. 이만큼 사람의 머리는 변화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국내시장에서의 국제경쟁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우

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 때가 왔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만 쳐다보든 사고방식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한국인이면서 지구촌 안의 세계인으로서의 시각을 갖추어야 할 때가 왔다. 국산품 애용이 애국이든 시대는 이미 지났고, 신토불이만 외쳐서는 세계에서 고립되고 만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을 면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애국이었고, 이런 수단이라도 동원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가 변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세계화 대열에 앞장서 끼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한때는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이런 국산품애용의 애국심이 우리산업을 국제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만들어 놓았음을 깨달을 때도 된 것 아닐까?

가전제품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선두주자 노릇을 하여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는 가전 3사 끼리 국내시장에서 경쟁해 왔지만, 이제 정부의 보호장벽이 사라지고 선진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국내로 자유롭게 쏟아져 들어 올날이 1~2년 밖에 안 남았고, 이렇게 되면 국내시장에서도 국제경쟁을 벌여야 한다. 여기서 품질 나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에게 국산품을 애호해 달라고 호소해 보았자 들어줄 소비자도 없다. 그러다 보니 외제에 지지 않은 품질의 제품을 내놓고, 선진국의 우수제품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으며, 품질 나쁜 국산 부품을 국산품애용이라고 써줄 수 만도 없다. 질 나쁜 부품에서 질 좋은 제품이 나올 수는 없는 것



이다. 결국 부품업체도 눈에 안보이는 선진국 부품업체와 국내시장에서 맞붙어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품질경쟁 시대

경쟁에는 두가지방법 밖에 없다. 하나는 저가품을 대량으로 값 싸게 만들어 파는 저가경쟁이다. 여기서는 품질보다는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해 지고, 웬만큼 쓸 수 있는 품질이면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낮추는데에 크게 주력하면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경쟁이 주로 이런 방법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러자니 많은 기업들이 양위주 성장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

또 한가지 경쟁방법은 품질경쟁이다. 가격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납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저비싼 값에 파는 경영방침이다. 이 경쟁에서는 값싼 부품으로 원가절감 하는 것 보다는 더 비싸더라도 좋은 부품을 써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듦으로써 더 비싸게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경쟁이다. 이 경쟁의 상대는 세계의 일류회사들이며,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충분한 기술투자가 요구되고 철저한 공정관리 체계가 요구되며, 따라서 인재양성이 성공의 요체이다. 그러나 저가경쟁은 원가관리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므로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방법이고, 인건비가 높아지고 원가가 상승하면 품질경쟁외는 갈곳이 없어지고 만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2단계 경쟁의 문턱에서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경영자들은 그래도 저가경쟁을 계속할 것인가? 고품질경

쟁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를 하루 속히 택일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여하에 따라 회사의 방향이 달라지고, 투자방향이 달라진다. 이제 남은 기간은 1~2년 밖에 없으니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적당한 품질로 적당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세상에는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경영하고 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치열하고, 그보다도 국민의 안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아련 제품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철저히 고품질 회사이거나, 철저히 저가품 대량생산 회사이거나 둘중의 하나로 회사의 방향을 굳혀야한다. 일단 고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결단을 내렸으면, 단기적 성과는 어느정도 희생이 되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경영계획을 세우고, 우선은 기초 다지기에 주력하여 고품질의 일류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굳혀나감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혀나가야 한다.

3D기피현상

또하나 우리가 넘어야 할 문턱은 소위 3D기피현상이다. 이것 역시 GNP의 성장을 기업이 못따라 간데서 일어난 현상이다. GNP의 성장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높아졌는데, 기업은 여전히 옛날 같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국민소득이 낮을 때에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무슨 일이라도 감수하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일들을 근로자들이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며, 기업도 이런 근로자의 변화와 함께 변화는 적응력이 있어야

하며, 이미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외국의 값싼 근로자를 수입하는 것은 땀질식 임시변통 밖에 안된다. 제아무리 많은 외국근로자를 데려와도 이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3D자체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것은 기업 자체가 선진화 되어야 한다. 성장 위주로 모든 자금을 생산설비 확장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도 훌륭한 투자임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 회사가 공장을 세울 때에는 처음부터 작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화학약품을 취급해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최우선 투자로 간주한다. 처음 계획부터 이런 환경투자를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는 것과 대등한 기본 요건으로 생각하며, 그래서 수익성이 없으면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

이런 작업환경에의 투자는 단순히 근로자를 편하게 해주자는 복지성 투자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환경투자를 사치스러운 복지성 투자로만 생각하고, 여유자금만 풍부한 대기업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부터가 기업의 후진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영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기업의 선진화는 안되고, 기업의 선진화가 안되는 한 제품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작업환경의 개선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은 2차적인 것이고, 높은 생산성과 높은 품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의 조건이며 이런 쾌적한 회사여야만

우수한 인재가 쉽게 모여든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우수한 회사가 되기 위한 기본이지 사치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는 몰드 프레스현상은 에어컨 없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왔으나, 이제는 근로조건의 개선 때문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금형의 치수 변화를 막기 위하여 에어컨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중 동일 온도하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만 고품질을 위한 까다로운 공차를 만들어 낼수가 있다. 옛날에 저가품 싸구려 제품을 만들 때에는 불가피하게 저생산성을 저임금으로 카바하고, 적당히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누가 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고임금을 고생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카바해 나가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로 고품질의 제품을 저원가로 낼 수 있는가?의 어려운 국제경쟁을 이겨나가야 한다. 선진국은 이렇게 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우리의 국내시장에 쏟아 놓을 것인데, 우리만 구태의 연해서야 경쟁이 되겠는가?

3D기피현상은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사회, 국민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을 못한 기업경영인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다. 경영자가 제아무리 이것을 한탄하고 있어 보았자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이 시련을 정면 돌파하는 경영자의 용단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몇년만 싸구려 외국인 근로자로 적당히 버티다가 문을 닫겠다는 경영

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는 한 생산설비에의 투자를 줄여서라도 작업환경 개선에 우선투자하여 기업의 선진화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기업의 선진화

국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당면하여 우리 기업의 경영인이 해야할 제일 큰 과제는 우선 발상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제아무리 성공적이었던 기업이라도 앞으로는 같으리라고 생각해서는 몇년도 건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세기업이든 가전업체이든 서비스업이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당면한 공통된 과제이다. 이제는 정부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고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외에는 갈길이 없다. 그간 너무나 정부의 보호나 지원에 의존하여 온, 그리고 국산품애용이라는 애국심에 호소하여 온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으로 지금 당장 장기전략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오늘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5년후 10년후에도 살아남을 것이냐?가 문제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년 밖에 없다. 이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

게 활용하여, 기업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가느냐?가 최대 급선무이다. 하루라도 속히 작업환경을 혁신하여 유능한 인재를 모으고, 이들의 설계기술 뿐 아니라 생산기술, 품질기술, 공정관리 전문가로 육성하여, 세계의 동종 업체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D 기피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3D현상 자체가 걸림돌이다. 라인강의 기적을 능가한 한강변의 기적을 낳은 우리기업이, 급성장의 기적에서 또 한번 선진화 세계화의 기적을 이룩할 것을 기대한다.

바른명절 보내기

한복을 맵시있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한복을 멋스럽고 맵시있게 즐겨 착용한다.

올해는 1월에 신정과 설날 명절이 모두 있어 1월은 한복을 맵시있게 입는 것으로 계절의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 여성한복

정식으로 갖추입으면 저고리, 치마, 단춧곳, 바지, 마고자, 두루마기 등이 있으나 전부 갖추 입자면 불편함도 있으므로 평상복에는 짧은 속바지와 긴바지를 계절에 맞게 누비바지나 고쟁이 등으로 바꿔 입고, 속치마는 색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겉치마보다 3센티 정도 짧게 입는다.

겉치마는 겉자락이 왼쪽으로 여며지게 입는다.

• 남성한복

- ① 바지는 주름이 왼쪽으로 가게 하고
- ② 허리 띠는 고를 만들어 맨 다음
- ③ 저고리를 입고 버선을 신고 대님을 한다.
- ④ 그 다음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순으로 입는다.

• 대님 치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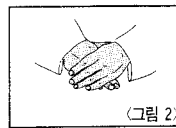
- ① 바지의 폭을 싸고 끝이 발목 안쪽 복사뼈에 닿도록 한다.
- ② 대님을 대고 2번을 돌린 후
- ③ 안쪽 복사뼈에서 한번 묶고
- ④ 나머지로 고를 맨 후 바지 끝을 내려 정리한다.

올바른 세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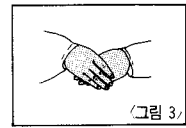
- 남자는 왼손을 위로 해서 두 손을 포개 얹드리고 여자는 두 손을 어깨 넓이로 짚고 손끝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해서 윗몸을 숙인다.

세배할 때의 손모양



(그림 2)

- 남자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 깎지 끼듯 가볍게 잡는다.



(그림 3)

- 여자는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올라가야 한다.